

본문 : 야고보서 1 장 16-18 절

제목 : 첫 열매, 빛으로 살아가라

1. 내리사랑

지난 주 예배 후에 목장모임에서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보물을 향한 욕망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또는 대자연 앞에 서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대자연 중에서도 특히 햇빛의 변화나 온도 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느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또는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진다는 고백도 했는데 무지개도 빛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이니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 석양녘의 아름다운 하늘 빛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9 편 5-6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다윗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오랜 시간 하면서 뜨거운 햇살을 긴 시간 동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내리 쬐는 광야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햇볕의 따뜻한 온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듯,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비출 것이라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17 절 말씀은 온갖 좋은 주어진(Giving)과 완전한 선물이 위에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방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이유이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의 방향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옵니다.

2. 변함 없으신 사랑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 온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거나 자주 심한 욕설을 들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아버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아버지도 사람이기에 가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할까 의심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한 쪽 방향에서 비칠 때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것이고 빛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께서는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주고, 좋은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 화가 잔뜩 나있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로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는 것을 즐겨워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마 7:11). 최근에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많이 와 닿습니다. 최근에 제가 디프레션이 심해서 의사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햇볕을 많이 못 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태양빛을 많이 쬐라고 하더군요. 낮의 태양광이 푸른 빛이어서 태양광에 맞춰 신체리듬을 조절해주는 푸른 빛 전등을 써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런 일이 핀란드나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지난 여름에 사주었는데 안 챙겨 먹고 있던 약이 비타민 D 였다는 것도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주며 알았습니다. 빛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비타민 같은 분이십니다.

3. 우리를 일부러 낳으셨다.

우리가 계획을 갖고 아이를 갖을 때가 많지만 어떤 때는 계획 없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낳으셨다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뜻을 정하셔서' 라는 말은 Volunteer 의 어원이 되는 헬라말 boulomai 라는 단어입니다. 'be willing, intend'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낳다는 동사는 15 절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다"에서도 쓰인 말인데 한 번 더 사용함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욕심은 죽음을 낳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셨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출생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성경의 네러티브와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네러티브가 뭔가요? 창조, 타락, 구속, 언약, 구원, 교회, 새창조의 구조가 성경 네러티브의 큰 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입니다.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 18 절 후반부입니다.

4. 피조물들의 첫 열매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 목적이 숨겨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피조물들의 첫 열매라는 말이죠. 첫 열매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야 더 깊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 장의 절기에 관한 법을 보면,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 와야 한다(출 23:19).” 레위기 23 장 10 절에서도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이 말씀들은 첫 열매가 수확의 첫 부분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 전체의 수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십분의 일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십분의 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수확의 보증과 증거로 드러진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통해 다가올 본격적인 수확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는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새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들 중에 으뜸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일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물들의 으뜸인 우리를 시작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첫 열매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를 낳으셨다.'고 표현하여 복수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낳으신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새 창조를 완성해 가신다는 깊은 뜻이 '우리'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2 장 3 절에 첫 열매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해한 말씀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셋째 첫 열매는 미래 회복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회복되고 완성될 온 세계의 창조의 회복을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이제는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고(Foretaste), 미리 보여주는(Foresee)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5. 첫 열매, 빛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모두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장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첫 열매를 한국말로 바꾸면 큰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집에 여러 아들이 있다면 부모는 큰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남듭니다. 큰 아들이 잘 돼야 동생도 잘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형이 동생들을 잘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큰 아들은 동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큰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도 다른 동생들보다 많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첫번째 자식이었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붓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과하게 사랑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가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이 작품이 장자 같은 작품이에요. 저를 유명하게 해주었고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서 장자라는 말은 ace 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Ace 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하나 교회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과 함께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새창조의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이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빛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빛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신 그 겸손을 우리도 배우고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빛으로 살아보기를 연습하는 절기입니다.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밝디 밝은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빛을 비추셨는지를 잘 알려주는 도덕경 제 4장에 나오는 경구가 있습니다. "화기광, 동기진(和其光, 同其塵)"이란 말은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보다 세상과 조화롭게 되어 은은하게 비추고, 마침내 먼지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들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문구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나의 빛남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로 낮아져 그를 얻는 것입니다. 은은하게 상대의 존재를 드러내 주는 예수님의 삶을 연습하고 실천해 보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는 자신에게 드리운 어두움을 오히려 빛으로 바꾸어, 다른 이들의 삶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는 작은 빛인 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시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 합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별> - 정진규